

# 친환경차 클러스터 조성, 지역 기업과 함께 한다

### 市·산업기술진흥원 업무 협약 기업 간담회로 의견 수렴 지속 광주만의 전략 개발 한목소리

광주시가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련 기업을 찾아 현장의 의견수렴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핵심 현안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재원분담률이 지난해 말 국비 1431억원, 시비 1405억원, 민자 194억원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달 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초부터 기업방문, 사전설

명회, 간담회 등을 열어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달 11일과 20일에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주산학연합회,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지역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금형·가전·광분야 등 부품기업이 참여한 ▲전장부품 ▲광융합부품 ▲차체부품 ▲특장차부품 ▲애프터마켓부품 그룹별 간담회를 열었다. 그룹별 간담회에서는 본 사업의 과제 제안요청서 발굴 계획, 장비구축 방향과 수요조사 등을 소개하고 사업 추진방향, 투자분야, 기업지원 등에 대한 지역 부품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미래 고객 타깃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 광주에서 잘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을 발굴·개발, 국내를 넘어 글로벌시장에 납품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시설·장비 위주의 인프라 조성보다는 타 지역이나 중국 저가제품과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역 부품기업의 생산과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어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주문했다.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바로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세분해 광주만의 우수성, 차별성 확보토록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에 지속적으로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부품기업 그룹별 간담회

를 열고, 광주그린카진흥원 홈페이지(www.gigca.or.kr)에서 지속적으로 부품기업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에 선도 기술지원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구축하고 친환경자동차 관련 핵심부품의 개발과 생산지원, 부품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역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지역 부품기업의 생산과 매출 향상에 중점을 두고, 부품기업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윤장현 시장, 기관장 공백 3곳 방문 현안 점검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3일 기관장이 공백 중인 여성재단, 문화재단, 신용보증재단을 차례로 방문해 현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복무기강 확립을 지시했다. <사진> 윤 시장은 "여성재단의 경우 설립 목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성평등 실현'의 싱크탱크, 플랫폼 역할 등을 통해 존재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 교류협력, 정책연구 등 외부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한계성을 파악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통해 교류·교감하고 대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여성재단이 되길 당부했다. 문화재단에서는 시민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산업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비엔날레 등 유관기관과 미디어아트 등 각 분야 역량 투입, 자

원 배분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소년 문제, 청년일자리창출 등 사회이슈 해결까지 고민해 주길 당부했다. 윤 시장은 특히 "불거리, 먹거리, 놀거리, 팔거리"를 주말에 집중해 '토요일은 광주가 좋아'라는 이미지 구축과 시내권·무등산권·누정문화권 등을 코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주호수 생태원의 정원화, 스토리텔링 및 포토존 마련, 주변 가사·누정문화권 프로그램과의 접목 등 규모와 질을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자금이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창업자에게 '청년창업특례보증'을 지원해 창업 성공스토리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취약계층 임금 최대 5년간 지원

### 광주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광주시는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도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한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10개 지정을 목표로,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총 6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를 갖추고 사회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일자리제공형은 5명 이상)을 고용해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실적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의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3월중 최종 선정 기업을 확정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7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광주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설명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이 최근 진행한 광주홍보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전남대 KOICA-MBA' 과정 외국인들. <광주시공무원교육원 제공>

###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13개국 외국인에 인권·문화 교육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은 최근 '전남대 KOICA-MBA' 과정을 대상으로 광주홍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남대에서 연수 중인 개발도상국 정부관료 등 외국인 교육생에게 광주를 소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우수 시스템 견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원과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해 왔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13개국 19명의 교

육생이 참석한 이날 프로그램은 주제 강의 '광주의 인권과 문화'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방문, 농촌개발의 다양한 사례와 토양검정실 등 발전된 영농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육원 관계자는 "교육생들이 현장학습을 통해 자국에 적용 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찾는 데 매우 적극적"이라며 "보건환경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환경공단 등 우수 시설을 추가 견학할 계획으로, 개도국과의 국제교류와 우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글로벌인턴십 교육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대 KOICA-MBA는 전남대가 대외 무상협력사업 전담 실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지원을 받아 개발도상국 정부관료 등에게 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자 역량과 전문지식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석사학위과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12개국 17명이 연수과정을 밟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 관광객 현황 '빅데이터' 분석

### 내일부터 '도시분석포털' 제공

광주시가 분석한 관광분야 빅데이터를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광주시는 광주와 인근 지역 관광객 유·출입, 내·외국인 관광객 현황 등을 담은 공간지도를 토지정보과에서 개발한 '스마트 도시분석포털'(gis.gwangju.go.kr)에서 7일부터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민선6기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을 추진, 지난해에는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관광·민원분야에 대한 분석모델을 개발했다.

이어 올해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기 위해 빅데이터 고도화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시민에 제공하는 관광 분석 플랫폼은 통신사(KT) 이동인구 데이터와 카드사(BC) 소비 정보를 분석해 내·외국인 관광객 유·출입 현황, 광주시 인접 시·군·

구 관광객 현황 및 관광객 변화 추이, 관광·축제 방문객 및 소비정보 시각화서비스 등을 담아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정용으로 개발된 민원 분석 플랫폼은 시민여론 수렴과 정책결정을 위해 전 주민원과 120콜센터에 접수된 민원, SNS 등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분석해 앞으로 민원 관련 상담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시기별 전체적 민원 대응에 활용하게 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시내버스, 교통신호체계, 119구급 등 정보를 분석해 관련 분야의 시민 불편해소와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이처럼 광주시 스마트행정담당관은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상시화하고 효과를 높여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자체 분석모델을 추가 개발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

## 경매/매매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서구 동전동 공장 창고**

대지 370평 건물 97평

최저가 681,578,000

감청가 1,217,104,900

**서구 해월동 상가 사무실**

대지 261평 건물 458평

최저가 145,531,000

최고가 2,072,187,000

**나주시 보산동 상가 사무실**

대지 551평 건물 181평

최저가 302,186,000

최고가 302,186,000

**화순 도곡 속박시설**

대지 980평 건물 1,296평

최저가 992,958,000

최고가 3,787,938,000

**서구 중평동 속박시설**

대지 91평 건물 340평

최저가 425,040,000

최고가 948,744,100

**백운동 빌라주택**

대지 66평 건물 146평

최저가 174,499,000

최고가 311,605,000

광안동 1015 개척로 722B

면적 200,000평

매매 160,000,000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183-68**

면적 1,600평

매매 340,000,000

지목 과수원(자연녹지)

**010-8559-8905 이용국 팀장**

**매도/매수 전문**

**010-3070-2147 유 여사**